

“인구 소멸, 다양한 관점 청년정책 개입 시급하다”

인구 소멸 문제가 전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청년 정책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인구 소멸은 저출산보다 사회 유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사회적 유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전남연구원은 창사·개원 30주년을 기념해 7일 나주혁신도시 소재 연구원 8층 상생마루에서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가 생존 문제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살펴보고 광주·전남의 위기 극복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정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구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과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주제

▶관련기사 5면

본보·광주전남연구원 ‘인구소멸 위기 극복 전략토론회’

관계인구, 복수주소제, 고향사랑 기부제 등 적극 검토 필요
청년이 지역내서 ‘기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경쟁력 갖춰야

발표자로 나섰으며 좌장은 조창완 연구본부장이 맡았다.

종합토론회에선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

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에 대한 책임이 맞물린 청년층의 인식에 있다”며 “기업의 일자리 격차, 취업·교육 경쟁,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됨으

로써 주거비 부담 등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현정 실장은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에 무작정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 지역을 이해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성장 동력으로 지향하는 관계 인구, 복수주소제,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전국가적인 최소 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 별로 가용 자원을 활용해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며 “인접 지자체간 경쟁 의식에 기인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 인구 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회에서 김동영 연구위원은 “인구 연령에서 핵심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20-40대의 청년 인구”라며 “혁신을 통해 미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30-40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충형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남 광양에 이어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이 학교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근 기자

중학교 집단감염 지역사회 전파 우려

광주·광양·순천시 중학생들 잇따라 양성 판정

광주에서 외국인에 이어 중학교 집단 감염으로 하루 평균 3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32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지역 누적 확진자는 4천334명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 하루 확진자는 ▲1일 42명 ▲2일 43명 ▲3일 26명 ▲4일 39명 ▲5일 28명 ▲6일 34명 등으로 하루 평균 35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셈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수 검사 과정에서 14명, 전남대병

원 관련 4명, 북구 모 중학교 관련 1명, 광산구 물류센터 관련 1명, 서울 확진자 관련 1명, 광주 확진자 관련 9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2명이 확진됐다.

현재 외국인 집단 감염 경로별 누적 확진자는 광산구 물류센터 관련 33명,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수 검사 관련 36명이다.

전남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북구 모 중학교의 경우 이날 가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15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3학년 검사에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1·2학년까지 포함해 312명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 97명이 자가격리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도 최근 광양·순천 모 중학교에서 각각 집단감염 발생으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광양의 경우 학생 22명에 이어 그 가족까지 8명이 감염되면서 감염 양상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다.

광양 중학교는 학생 간 접촉 통제와 냉방기 작동 시 외부환기, 마스크 착용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추가 감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 전남에서는 15명(순천 11명, 나주

2명, 목포·해남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2731·2745번으로 분류됐다.

순천에서 발생한 11명 중 3명(전남 2732·2734번), 목포 1명은 유증상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7명(전남 2738·2744번)은 기확진자의 가족들로, 전수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전남 2735번)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최근 확진자가 나온 순천의 한 중학교 관련,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주에서 발생한 2명(전남 2736·2737)도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다.

해남에서 발생한 전남 2731번은 기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기확진자는 광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승자·임충형기자

“호남 민심을 잡아라” 추석 앞두고 ‘명낙혈투’

추석연휴 직후 광주·전남, 전북 경선...대권후보 대세 사실상 결정

민족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 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호남 민심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후 치러질 광주와 전남·북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대권 후보의 대세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7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충청권 1차 순회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1차 선거인단 투표(수퍼위크·12일)와 호남 경선에서 대세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 대선에 직행할 것인가, 추격전을 벌이는 이낙연 후보가 최대 지지기반에서 반격을 통해 결선투표까지 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국 약 70만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호남은 30%를 육박(20만여명)해 승부의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권리당원 광주 4만4천674명, 전남 6만1천492명, 전북 7만5천367명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호남 공약이 조기가시화되고 있다.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이로 뒤진 이낙연 후보는 대구·경북, 강원 경선을 앞두고 8일 광주를 먼저 찾는다.

선제적 공격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어 광주 모방송국곡의 인터뷰에 이어 표발 같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로 내려와 오는 15일 광주MBC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18일 무등산 등반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역시 TV토론회 일정에 맞춰 오는 15-16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8-19일 다시 호남을 찾는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는 8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머물며 표심 잡기에 나서며 이 후보측 선거캠프 지도부인 우원식·정성호·조정식 의원도 9일부터 17일까지 호남지역을 돈다.

이들은 이 후보가 방문하기전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이 후보는 오는 12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광주·전남 공약도 발표한다. 정세균·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 등도 추석 연휴를 맞이해 본격적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충형기자

Today

수배자 확보...경찰 16일간 뒤흔다? 6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천은사 14면

류현진, 양키스를 잠재우다 16면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을 위한 컨설팅·교육지원
-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전시박람회 지원

대표번호

본원 : 061-288-3800
동부출장소 : 061-901-0570

홈페이지

www.jepa.kr